

안타까워요



오늘날 전세계에서
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들이
통계상 대략 5명 중 1명이라 하네요.

이 통계수치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요.

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
공평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

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?



아프리카 대륙같이 지리적으로 물 부족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이 있어요. 그 나라들에 사는 국민들은 깨끗한 물은커녕 흐르는 물 자체가 집 가까이에 없어 생활용수를 구하기가 항상 어렵다고 해요.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예요. 그러므로 우리 눈앞의 풍성한 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내가 물을 쓸 때마다 이 물을 구하기 위해 일상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떠올리면 좋겠어요.



내가 물을 아껴 쓴다고 해서 물 부족 국가들에 사는 국민들에게 금방 깨끗한 물이 제공되는 건 아니예요. 하지만, 물에 관한 한 깊은 고민, 이른바 ‘정의로운 물(공정한 물)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는 있게 되겠죠. 예를 들어 햇빛으로 오염수를 정화해서 식수로 만드는 신기술 ‘솔라백(SolarSack)’ 같은 친환경 과학기술에 투자할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.